

가나 잡고 16강 가나



월드컵 승리의 날 밝았다 2022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축구대표팀의 손흥민(가운데) 등 선수들이 카타르 도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축구 대표팀이 가나와 외나무 다리 승부를 벌인다. 우루과이와 1차전에서 0-0으로 비겨 H조 공동 2위(승점 1)에 포진한 한국은 목표인 16강 진출을 위해 반드시 가나를 넘어야 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28일 밤 10시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두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가나와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기록하고, 2010 남아공 대회에선 첫 원정 16강이라는 쾌거를 올렸다. 이후 조별예선에서 3경기만 치르고 짐을 싸야 했다. 이번 대회는 다르다. 한국 대표팀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4위인 우루과이와 대등한 경기력으로 무승부를 일구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공격의 핵으로 꼽히는 캡틴 손흥민(30·토트넘)이 든든하다.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음에도 손흥민은 우루과이전 풀타임을 소화하며 그라운드를 적응을 마쳤다.

오늘 밤 가나와 조별리그 2차전 한국이 반드시 이겨야 할 상대 승리 위해선 전략 유연성 높여야

우루과이전 전반 26분 역습 과정에서 왼쪽 측면으로 쇄도한 그는 상대 수비 두 명을 연달아 제치고 페널티지역 왼쪽 모서리에서 오른발로 공을 잡아차는 등 번득이는 움직임도 보였다. 신발이 벗겨지고 양말이 찢어질 정도로 심하게 뒹군데, 손흥민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달리는 등 '감동 투혼'을 선보였다. 감독이 4년 내내 공을 들여온 '빌드업 축구'도 월드컵에서 먹히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벤투호의 조직력은 우루과이전에서 좀처럼 흐트러지지 않았다. 이른바 '뺑족구'를 하지 않고 공을 계속 점유하면서 패스워크로 차근차근히 풀을 노렸다. FIFA 기록에 따르면 전반전까지 한국의 점유율은 45% 대 42%로 우루과이에 앞섰다. 빌드업이 가나전에서 통한다면 16강 진출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다. 벤투 감독의 전략적 유연성도 관련 포인트다. 벤투는 지난 24일 우루과이전 후반 중원이 활력

을 잃어가자 '골든보이' 이강인(21·마요르카)과 조규성(24·전북)을 투입, 경기의 흐름을 바꿨다. 이강인은 투입 후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으나 후반 32분 중원에서 정확한 패스를 올린 게 조규성의 슈팅으로 이어지는 등 중원에서 활력을 더했다. 하지만, 한국이 반드시 잡아야 하는 가나는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가나의 FIFA 순위는 61위로 H조에서 가장 낮지만, 이번 대회를 앞두고 이냐키 윌리엄스(아틀레틱 빌바오), 타릭 램프티(브라이튼) 등 이종국적 선수를 대거 영입해 '복병'으로 꼽힌다. 포르투갈(9위)과 1차전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여 2-3으로 패하는 등 녹록지 않은 실력을 선보였다. 다만 측면에서 쉽게 공간을 내준다는 점은 벤투호가 공략할 만한 약점으로 꼽힌다. 한국이 가나를 이기면 오랜 징크스 하나가 깨지게 된다. 한국 축구는 역대 월드컵에서 총 6승을 수확했다. 이 가운데 3승이 조별리그 첫 경기, 2승이 세 번째 경기였다. 2002 한일 월드컵 당시에는 16강에서도 이탈리아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챙겼다. 그러나 아직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에서는 한 차례도 이긴 적이 없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 문단의 주인공 당신입니다

2023 광주일보 신춘문예
12월 8일(목)까지 접수

광주일보사가 한국문단의 새 주역이 될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작가 발굴을 위해 광주일보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창간 이듬해인 1953년 시작된 이후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 되었으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 문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치열한 문확쟁신이 살아 있는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부문 및 상금
 -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300만원)
 - 시 : 3-5편(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동화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접수 마감 : 2022년 12월 8일(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61482, 광주시 동구 급남로 224 광주일보 문화부. 062-220-0624
- 기타 유의 사항
 - 팩스나 이메일, 손글씨 원고는 받지 않으며 A4에 출력한 원고를 보내야 합니다.
 - 접수 시 맨 앞장과 뒷장에 이름·전화번호·주소·이메일주소를 첨부해주시고.
 - 응모 작품은 발표된 적 없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중복 입선된 원고나 기성 작가 표절일 경우 당선시 취소됩니다.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선작은 2023년 1월 1일자 광주일보 지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光州日報社

광주·전남 20~60mm '단비'

비 내린 뒤 본격 추위 시작
30일 첫 눈 내릴 전망

광주·전남지역에 비가 내린 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고, 30일에는 올 겨울 들어 첫 눈이 올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28일 새벽 3시께 전남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 6시께부터 광주·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27일 예보했다. 이날 새벽에 시작된 비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9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동부권에 20~60mm, 그 외 광주와 전남 지역은 20~40mm 수준이다. 기상청은 29일 오전 중 비가 그친 뒤 30일 오

전부터 다음날 1일까지는 확장한 대륙 고기압이 따뜻한 서해안 공기와 만나면서 눈 구름대가 형성돼 올 겨울 첫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28일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10도, 낮 최고기온은 21도로 전날보다 5~10도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남지역 역시 아침 최저기온은 5~12도, 낮 최고기온은 18~22도로 평년(아침 최저기온 0~6도, 낮 최고기온 11~13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은 아침 최저기온은 -4도~3도, 낮 최고기온은 2~10도로 평년(아침 최저기온 0~5도, 낮 최고기온 11~13도)보다 낮아 춥겠다. 남하하는 북서쪽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민원기 기자 hyunki@kwangju.co.kr

- ▶2면 광주역 일대 창업벨트 조성 속도 낸다
- ▶6면 부동산 허위매물 눈치보기 단속 서민 피해
- ▶22면 공공 조형물 - 핀란드 사벨리우스 공원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영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전남의 새로운 미래,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대한민국 기초과학과 첨단산업 발전의 새 지평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반도체
· EUV광원, 미세가공

의료, 생명공학
· 소형 암 치료기

우주항공, 국방
· 특수 소재, 우주광통신

에너지
· 핵융합, 무선 전력 전송

초강력레이저연구시설은?

초고출력과 고에너지에 기반한 레이저를 활용하여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한 분야의 산업적 응용 기술을 개발하는 복합연구시설

전라남도
Jeollanamdo